

건넸지. 그중엔 비르지니의 글씨가 적힌, 라 투르 부인 앞
 으로 온 편지가 하나 있었네. 풀은 곧장 그 편지를 쥐고서
 격렬하게 입을 맞추고는 품에 안고 집까지 달려갔어. 저
 멀리 이별바위에서부터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던
 가족을 보자, 그는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편지를 공
 중으로 들어 올렸네. 머지않아 온 가족이 그 편지를 읽기
 위해 라 투르 부인의 집에 모였어. 비르지니는 이모할머니
 가 저지른 악독한 소행을 너무 많이 겪었다고 어머니에게
 토로했네. 이모할머니는 억지로 자기를 결혼시키려고 했었
 는데, 그 뜻에 반대하자 바로 상속권을 박탈시키고, 결국
 자길 돌려보내긴 했지만, 그 시기를 프랑스 섬까지 도착해
 봤자 태풍을 만날 수밖에 없는 계절에 맞춰 보냈다고 말이
 야. 자기는 어머니에게 입은 은혜와, 유년시절 친분을 가
 졌던 이들에게 신세진 것을 들어가며 할머니의 뜻을 꺾어
 보려 노력했지만 헛수고였다고 했네. 자길 소설 때문에 머
 리가 망가진 해괴망측한 소녀로 취급했다고 했어. 다만 지
 금은 오로지 소중한 가족을 다시 보고 품에 안아볼 수 있
 으리라는 행복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으며, 만약 신장
 님께서 조타수가 모는 거룻배에 타도 좋다고 허락만 해주
 었더라면 그날 당장에라도 이 간절한 소망을 부족함 없이
 채웠을 것이라고도 했네. 그런데 신장은 육지가 멀리 떨어
 져 있기도 하고, 외해에서 맹위를 떨치는 거친 바다 때문에,
 바람이 잔잔한데도 불구하고 그 배에 타는 것을 반대했다고